

# 주물기업 대동금속, 로봇·시온실 소재기업으로 '탈바꿈'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서 비전 제시  
2030년 매출 2400억 목표  
해외 매출 비중 단기 30% 확대  
올해 수주 목표 1050억 상향

반도체·선박 부품 수주 증가  
스마트팜 구조재 시장 공략  
제조AX로 생산체계 고도화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대동금속이 로봇·모빌리티 신합금, 스마트팜 구조재 등 신사업을 장착해 고부가가치 정밀주조·첨단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엔 지난해(1018억원)보다 매출이 2배를 훌쩍 넘는 24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재 전체 매출의 약 10% 수준인 해외 비중도 단기적으로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동금속은 대동그룹의 전통 주물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1947년 탄생했다.

이풍우 대동금속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CMM 빌딩에서 진행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난 79년간 축적한 정밀주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선, 발전, 반도체, 산업기계 등 고부가 산업군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는 고부가 정밀주조 수주 확대와 첨단 소재 신사업, 제조 AX를 통해 미래 산업



이풍우 대동금속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CMM 빌딩에서 진행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동그룹

소재·부품 기업으로 전환하고 2030년 매출 2400억원 달성과 기업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동금속은 전동화와 친환경 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주조산업의 무게중심이 범용 주물에서 고부가 정밀주조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에 맞춰 관련 수주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조선·산업기계 등에서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며 지난해에만 484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설비부품, 선박 영역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279억원 어치를 수주했다. 당초엔 올해 수주 목표를 700억원으로 설정했지

만 이를 105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고 설명했다.

대동금속이 현재 내다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중 하나는 로봇·모빌리티 신합금 개발이다. 앞서 대동금속은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협력을 맺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감속기 케이스, 액추에이터 하우징, 로봇 팔 프레임과 EV·UAM·드론용 경량 부품에 적용할 신합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8년 사이 KIMS와 공동 개발 및 파일럿 라인 구축을 거쳐 2029년부터 고객사 성능 검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외부 매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의 미래사업인 AI온실 구축과 연

계한 스마트팜 소재 분야도 진출한다. 대동그룹은 농림부의 '국가 농업AX플랫폼' 대표기업으로 선정돼 전남 무안군 일대에 21.6ha(약 6만5000평) 규모의 첨단 AI 온실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현재 4조원 가량에서 2030년에는 두배 가량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이 가운데 스마트팜 건축시장 규모가 제일크고 여기서 35% 가량이 뼈대, 골조 등 구조재 분야다. 내년엔 정밀주조 기술과 소재·부품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구조재 시장에서 첫 매출 발생을 목표로하고 있다. 새만금·강진 등 후속 스마트팜 프로젝트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로봇 소재 영역까지 사업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사업 확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 AX 기반의 생산체계도 고도화한다. 올해 4억원 이상의 제조AI 특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 이후 약 12억원 이상을 투입해 자율형 공장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30년에는 ESG 완성형 스마트팩토리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량률 저감, 설비 가동률 개선, 납기 안정화,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고부가 정밀주조 확대에 필요한 제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한전선, 포설선 2척 체제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 강화  
수은 1000억 지원으로 인수 재원 확보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전용 포설선(CLV)을 추가 확보하며 해상 시공 인프라를 두 척 체제로 갖췄다.

대한전선은 CLV '스칸디카넥터'호 인수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포설선은 해저케이블의 운송·포설 등 해상 시공 전반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번 지원으로 대한전선은 포설선 확보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해저케이블 시공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금융 지원은 지난 3월 대한전선의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 건설을 위해 진행된 4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의 연장선으로, 생산 설비에 이어 시공 인프라까지 정책금융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스칸디카넥터호는 자항능력과 선박위치정밀제어시스템 등의 설비를 갖춘 1만 1000톤급 국내 최고 사양의 포설선이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대한전선의 두번째 CLV '스칸디카넥터'호. /대한전선

## HD현대일렉, 북미 AI 데이터센터에 1.1조 전력기기 공급

빅테크와 장기 공급 기본계약 체결  
배전·전력기기 합산 최대 1조1212억  
AI 전력수요 확대 속 북미 공략 속도

HD현대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대형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배전기기와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역량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대 1조1212억원 규모의 배전기기 및 전력기기 장기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품별 계약 규모는 배전기기 5539억원, 전력기



HD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한 배전 변압기(왼쪽)와 전력 변압기(오른쪽). /HD현대일렉트릭

기 5673억원이다.

이번 기본계약은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따라 실제 발주가 나누어 진행되는 방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북미 지역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에 관련 제품을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는 배전기기와 전력기기를 함께 공급하는 패키지 역량이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전부터 변압, 배전, 내부 전력 분배까지 안정적인 전력망 구성이

필요한 만큼 설비 간 연계성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HD현대일렉트릭은 주요 전력 인프라 제품을 묶어 공급하며 설계 정합성과 납기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과 클라우드 투자가 이어지면서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고 있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 중견기업 경기전망 4분기 연속 상승

중견연, 3분기 경기전망지수 87.6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연속 상승하며 하반기 수출, 내수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전망지수는 87.6으로 전분기의 82.8보다 4.8p 상승했다.

제조업(84.4)이 전분기(77) 대비 7.4p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가운데 비제조업도 2.5p 상승한 90.6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해 3분기 당시 78을 기록한 이후 81.4(2025년 4

분기)→82.1(2026년 1분기)→82.8(2분기) 등 4분기 연속 오름세다.

중견기업 수출전망지수는 제조업(96.8, 7.4p↑)과 비제조업(94.0, 3.2p↑)이 모두 상승하면서 전분기(89.9) 대비 6.1p 증가한 96을 기록했다.

중견연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최종 합의에 따라 물류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된다면 수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수전망지수 역시 전분기(86.9)보다 3.2p 증가한 90.1로 나타났다. 제조업(90.7, 4.8p↑)과 비제조업(89.5, 1.6p↑) 모두 상승했다.

/김승호 기자

## 한화솔루션, 석화제품 톤당 최대 25만원 인하

정부 지원분 공유로 고객사 부담 완화

한화솔루션이 정부의 나프타 및 기초유분 지원에 맞춰 주요 석유화학제품 판매가격을 인하한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플라스틱 가공업체와 비용 절감 효과를 나누고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한화솔루션은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격 인하는 정부의 나프타·기초유분 지원으로 발생한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사와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인하 폭은 제품별로 톤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수준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플라스틱 가공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정부 지원 효과가 최종 수요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제품은 포장재, 전자재, 생활용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의 기초소재로 쓰인다. 원재료 가격 변동이 가공기업의 생산비와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중소 고객사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솔루션은 가격 인하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중진공, 탄소중립 설비 지원  
협력 중소기업 30곳 선정

원청 17곳 참여... 최대 3억 국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2026년 탄소중립 설비 투자 지원사업(공급망 트랙)' 지원 대상 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2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온실가스 관리 강화 등 국내외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청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을 지원하면 정부가 이에 국비를 더해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선정 기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개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개사 등 공급망 내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제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공정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17개 대·중견기업이 원청기업으로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국비 지원 한도는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비를 10% 부담하면 최대 3억원, 협력 중소기업의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최대 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